Entertainment p/20

여름 댄스 가고 촉촉 발라드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월드컵 '7일 기적' 가능할까

세월호 첫 재판 열린 광주지법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도주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직접구매>

국민 4명 중 1명 "해외 직구 경험"

환율 영향 4월까지 4800억… 전년비 56% 급증
금융권 맞춤카드 출시… AS·환불 복잡 단점도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지연(37·여)씨는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자녀 의류비를 50%가량 줄였다. 김 씨는 "갭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티셔츠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직구 카페 등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할인 행사나 브랜드별 시즌 할인, 카드사 혜택 등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1벌 사는 가격으로 4~5벌은 거뜬히 산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5년 10개월 만에 장중 1015원까지 떨어지면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은 약 500만건으로 4억7800만 달러(약 4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전년동기의 3억1600만 달러보다 56%나 급증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 쇼핑족 4명 중 1명은 해외직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쇼핑족 1650명에게 실시한 '해외 직접구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4.3%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해외직구 선호 이유로 △국내 동일상품보다 싼 가격(67%) △다양한 상품 종류(35%) △우수한 품질(20.3%) 등을 꼽았다.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찾는 해외 직구족들은 물품 구매 품목 또한 기존의 옷, 화장품, 가방 등에서 벗어나 가전, 자동차 부품, 보트 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 카드 혜택·초보자 강연 눈길

금융권도 늘어나는 해외 직구족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맞춤형 카드와 각종 혜택 등을 내놓으며 해외직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연말까지 IBK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배송료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해외 직접 구매족들은 한진 이하넥스의 배송대행 서비스와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로 결제시 배송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한진과 업무제휴 기념으로 6월 한 달간 배송료 15% 할인을 비롯해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구매금액의 13%) 전액 면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NH농협카드는 최근 해외전용 카드인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내놨다. 해외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이 상품은 마스터카드 프로모션으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직접 구매고객을 위한 무료배송과 할인이 가능하다.

우리카드 또한 해외직구족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SMART한 해외직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하는 해외직구 이벤트는 아이포터를 이용하는 우리카드 이용고객에게 20~70%의 배송비를 할인해준다. 또 해외직구족의 불만인 해외구매 물품 수리비에 대한 무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직구 초보자들을 위한 강연도 마련됐다. 우리카드는 12일 해외직구를 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많은 우리카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포터와 우리카드가 함께하는 해외직구! 더 쉽게 다가서기' 초청 강연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사후서비스·환불 주의해야

해외직구는 해외로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하기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해외배송 대행서비스 제공업체인 몰테일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믿을 수 있는 배송대행지를 선택하고 해외 계정 e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커뮤니티를 통해 핫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간단한 용어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박선미기자 lsw0203@metroseoul.co.kr

여행상품 필수 경비 표시 '초특가' 허위광고 못한다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으며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게 됐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여행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충청 언론인 출신 총리 지명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깜짝 발탁…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

규제개혁 강의에 쏠린 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2014년도 규제개혁 합동교육에서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서울·과천권 17개부처 공무원 350여명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총리 후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문창극 이병기

이로써 총리 후보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44일만에, 국정원장 후보는 남재준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20일만에 각각 지명을 받았다.

문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주미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예상을 깨고 중견 언론인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야권에 모조리 빼앗기면서 충청권 총리 카드를 모색해온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의 두축을 완성했다.

문 후보자는 "겸손하게 남은 평문의 정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나라의 기본을 만드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원격의료 반대 어리석음 버려라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 3월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시행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도마 위에 올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일단 노환규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욕심을 내는 차기 회장 후보 3명이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시범사업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회장에 되더라도 시범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까지 나서서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 검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의협 집행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집행부는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둡은 오는 18일 의협 회장이 선출되고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집행부도 시범사업에서 발을 뺀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범사업 시행 발표 후 세부적인 합의 사항이나 추진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미 시범사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은 시범사업 반대가 아닌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논의해야 할 때다.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아래 집단 휴진과 파업을 통해 간신 얻진 성과를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 묘소 찾은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당지도부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퇴계에 항의하는 뜻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불참하고 모란공원에서 자체 기념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대통령 해외순방 야당 의원 동행

16~21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때부터 야당 의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지금까지 야당이 참여를 안했으나 이번 순방부터는 대통령이 소통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대표 의원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누구를 파견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6~21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야당 의원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현준기자

'관피아' 근절 정부안 전관예우 빠져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됐다.

안행부는 이런 논리와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윤다해기자 yelk@

뉴스&뉴스

정부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

●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등과 같은 캠페인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순부터 여름휴가를 하루 더 가도록 하는 등 '2014 하반기 국내관광 회복·활성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심재철 "국조특위 16일부터 가동해야"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특위는 최소한 16일부터는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진상 규명을 원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 모든 국민의 염원을 감안할 때 마냥 늦출 수 없다"며 "야당에서 월드컵 때문에 특위를 늦춰야 한다고 하지만, 월드컵은 세월호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유병언 아직도 못 잡다니 말도 안돼"

박 대통령, 검·경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도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는 희생자의 비명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준기자

"대피하라 한마디만 했어도…"

세월호 승무원 15명 첫 재판…유족 "가족 영혼까지 죽여"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상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 왔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써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탈출을 감행했고 관련 법률과 운항관리규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해양경찰 채용 적성검사 10일 오전 인천시 남구 [illegible]대학교에서 열린 2014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적성검사에 응시자들이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 '마이핀'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는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는 8월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마이핀 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거나 불러주면 된다.

/윤다혜기자 ydh@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오락가락하는 소나기가 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옷으로 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스미싱' 범행 10대 구속

세월호 참사 언론속보를 사칭한 문자로 금융 사기를 저지른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악성앱을 유포하고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에 진군은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윤다혜기자

"한국인 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필리핀, 코리안 대상 범죄 전담반 10곳 추가 설치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연내에 10곳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방한한 레나토 굼반(54)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장은 지난 9일 "세부와 보라카이 등 관광지를 비롯해 팜가시난과 메트로마닐라 세티 등지에 코리안 데스크 1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납치 등 강력 사건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필리핀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과 공조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지금은 필리핀 경찰청에만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고 우리나라 경찰 주재관 한 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우리 교민 1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년 한국인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민 12명이 현지에서 피살된 데 이어 올해에도 이 달까지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굼반 국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코리안 데스크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필리핀 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한국 경찰에도 파견 경찰관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기자

아기사진 촬영권 제공

서울시 관악구는 출생신고 시 아기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는 촬영권을 제공한다. 구는 '아가포스 스튜디오'의 재능기부로 아기사진 무료 촬영서비스를 실시한다. 무료 촬영권 기간은 출생 후 60일 이내이며 사전예약 해야 한다.

강남구, 해외환자 유치 1위

서울 강남구가 지난 해 4만5535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보건복지부 발표결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구는 지난 2010년 수상 이래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를 달성했다.

전시 희망 중소기업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가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에 참여할 기업 10개소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5일까지며, 참가 신청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학 재학생·편입생·복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다자녀) 신청을 접수한다.

소득분위별 연간 장학금 규모는 2분위까지 450만원,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을 지원하며 7~8분위는 67만5000원이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가 시행돼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1학기 성적반영)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죽헌에 둥지 튼 오색딱따구리 신사임당과 율곡의 숨결이 남아 있는 오죽헌 배롱나무에 오색딱따구리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오죽헌의 뒤편에 있는 배롱나무 줄곡에에는 최근 구멍을 뚫고 새끼 2마리를 키우는 오색딱따구리가 관광객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상이나 야구장 벽면에도…

서울 공공기관 34곳에 신재생 발전소 설치

서울시내 공공기관 34곳의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10일 목동야구장과 사회복지시설 6곳, 119안전센터 8곳, 공공청사 19곳 등 총 34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목동야구장 출입구 전면 벽면에는 4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다. 야구장은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경기장 운영과 청소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성동 금남경로당, 독산실버문화센터, 마장 제4경로당, 마장 제2경로당, 금천 독산1동 분소복지관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양천 어르신요양센터에는 태양열 발전소가 설치된다.

시는 전력수급 위기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공건물에 발전소를 설치해왔으며 올해까지 설치 완료되는 발전소는 총 314개다. /윤다혜기자 ydh@

생활비·재무 상담하세요
베이비붐 세대 재무컨설팅

서울시가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와 채무로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공공 재무컨설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6시 은평구 녹번동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하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나 이메일(welfare.ks@welfare.seoul.kr), 전화(1644-0120)로 예약해야 한다.

가계 재무설계, 채무 조정, 전환대출상담을 비롯해 금융 재무와 관련된 궁금증이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상담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파산면책, 개인회생 같은 방법을 안내한다.

강명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소위 '낀 세대'로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말까지 시범운영해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기자

마을변호사 1년만에 1천명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전 도입된 마을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으로 시작해 현재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변호사가 배치된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지난 5월 현재 85.7%로 약 2배가량 높아졌다.

상담 주제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종교동행 문제에서부터 이혼·상속·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부산 사상공업단지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는 사상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덕성여대, '여성 전문성' 포럼

덕성여대는 12일 오후 3~5시 학내 약학관 아트홀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인사들을 초청해 '제3차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여성과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제·이동'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역할과 전문성의 변화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달리는 시한폭탄' 활어 차량

화물차 수십대 불법 개조… "대형사고 위험 크다"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이용한 활어 유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자모(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동안 화물차 수십대를 활어 운송용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미 등록된 일반 화물자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씨 등 활어업계 대표 10명은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모(35)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적발된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m 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을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은 활어유통업체들이 쉽게는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불법 개조 차량이 최소 수십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활어통 550여개를 제작해 2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미등록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5명과 불법 개조된 활어 운송용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 김모(40)씨 등 17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차량이 급정거·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준기자 ysjdn@metroseoul.co.kr

졸업 미소 1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인주관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앨범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 지하발전소 논란 재점화

주민 "폭발이라도 하면" 백지화 요구 … 발전소 측 "이중 안전장치"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계획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역 주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화력발전소 지하화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이중 안전장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첫 화력발전소다. 현재는 서울 반포·여의도·마포 등지 7만 가구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까지 1조180억원을 들여 지하 30m의 암반층까지 땅을 파 400㎿급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수립됐지만, 안전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갈등을 겪다가 7년 만인 지난해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대규모 부지의 지하를 30m 깊이로 파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발전소 측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홍보할 뿐 불안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준기자

서울 도심 실탄 50발 발견

서울 도심 화단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공총 실탄이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어제 오후 4시 40분께 강서구 등촌동 흑플러스 건물 바깥 화단에 놓여 있던 붉은색 탄통을 홈플러스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탄통에는 지름 9㎜ 크기의 공총 실탄 50발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실탄을 모두 수거해 군 당국, 국가정보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으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실탄은 1966년 윈체스터 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외국 사격장에서 연습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오바마 또 백악관 탈출

스타벅스 깜짝 방문…개혁안 안 풀리자 '친서민 행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스타벅스에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과 백악관 인근 스타벅스를 깜짝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백악관 앞 내셔널 몰을 횡단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인근 식당을 다녀오기도 했다.

스타벅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환호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본 것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광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곰이 풀려났다"고 농담을 건넸고, 핫도그를 파는 상인은 물론 건설 노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백악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최근 그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분석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조치에 공화당이 반대하자 크게 노여워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백만장자의 감세안과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한도를 월소득의 10%로 제한하기로 한 학자금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 최소 500만 명이 추가로 수혜자가 되게 하는 내용이다. 2007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2011년 10월 이후 대출을 중단한 사람들이 새로운 수혜자가 된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가계 소득은 약간 올랐지만 4년제 공립대학의 수업료는 세 배 이상 뛰었다. 현재 미국 내 대학 졸업자의 71%가 평균 2만9400 달러(약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축하에 들떠서? 9일(현지시간) 미국 NCAA(미대학체육협회) 농구 챔피언십 남녀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여자선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자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이 놀라고 있다. /AP뉴시스

"백악관 나올때 수백만달러 빚더미"

힐러리 '빈털터리' 고백 강연료 받아 생계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미국 국무장관이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빈털터리였다고 털어놨다.

클린턴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ABC 방송 앵커 다이앤 소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2001년 퇴임 당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다. 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과 첼시(딸)의 교육비를 대느라 안간힘을 썼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통령 봉급과 연금 등을 생각하면 언뜻 '빚쟁이 클린턴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9년을 기준으로 이들 부부는 40만 달러 이상의 합산 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 소송 등으로 1200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구심은 쉽게 풀린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남편과 강연을 통해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벌어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강연료는 회당 20만 달러(약 2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저술과 강연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의 새 회고록 '힘든 선택(Hard Choices)'은 10일 발매됐다.

/조선미기자

대형 나방때 출몰 시민들 '덜덜'

metro Russia

곤충학자 "6년주기 현상"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 밤낮없이 대형 나방떼가 출몰, 시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밤에 가로등 주위에 엄청나게 몰려든 나방떼를 봤다"며 "사람들의 머리와 손, 옷 등 가리지 않고 나방들이 달려들어 징그러웠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방떼를 본 시민들은 즉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나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을 배경 삼아 찍은 '멋진' 사진이었지만, 대부분은 나방이 바닥을 가득 메우거나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사진으로 나방떼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곤충학자 블라디미르 예프레멘코는 나방떼의 출몰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곤충은 6년을 주기로 폭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며 "이는 이상고온 현상과 먹이 환경 등 곤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 대형 나방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지만 1~2주일 후면 나방의 번식이 끝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리아 쉬피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팡테옹 벽·바닥 이색 전시회

metro France

튀니지 출신의 프랑스 아티스트 JR이 파리 팡테옹의 벽과 바닥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팡테옹은 빅토르 위고와 볼테르, 루소, 에밀 졸라 등 프랑스를 빛낸 위인과 영웅이 묻혀있는 곳이다. 파리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인 팡테옹을 무대로 자신의 작품을 보이는 JR은 '인사이드 아웃 이'라는 전시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유적센터의 필리프 브라발 회장은 "이번 전시는 팡테옹을 한바퀴 둘러볼 수 있는 초청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오드리 본코마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사랑의 자물쇠' 말썽 센강 다리 난간 붕괴

프랑스 파리 센강의 퐁데자르 다리에 빼곡하게 채워진 '사랑의 자물쇠' 무게 때문에 다리 난간이 결국 무너졌다.

파리시 당국은 2.5m 길이 철제 난간 두 개가 8일(현지시간) 붕괴됐다고 밝혔다. 난간 붕괴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퐁데자르에 자물쇠가 처음 걸린 것은 2008년이다. 이후 퐁데자르를 찾는 연인들은 사랑의 징표로 자물쇠를 난간에 걸고 열쇠를 센강에 던지며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코스닥
2011.80 (+21.76)	532.64 (+2.61)
금리	**환율**
2.62 (-0.02)	1017.00 (+1.60)

뉴스&뉴스

아이패드 사면 데이터 500MB KT는 아이패드를 구입한 고객에게 1년 동안 LTE데이터 500MB의 셀러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제공

SC은행 고객정보 추가 유출

●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만1000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의 9만4000명 외에 1만1000여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새로 발견됐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한국SC은행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9만4000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줬다가 지난 1월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만1000명 정보 유출이 추가로 나온 것. 이에 따라 한국SC은행의 정보 유출은 총 10만5000명으로 늘었다. /윤인지기자

4대 보험료 카드납부 가능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와 국무회의는 지난 3월 규제 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수용해 이처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카드 납부가 전면 가능해진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13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6

건설업계 '친환경' 열풍에 빠지다

환경보호는 기본, 관리비 절감까지 '일석이조'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건설사들도 녹색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대표되던 아파트에 최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녹색건물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국제특허를 받은 '건축물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시스템(LOCAS)'을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에 도입,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줄였다. 이는 40년간 약 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략인 '그린 프리미엄'을 발표한 후 분양하는 단지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된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와 '용산 푸르지오 써밋' 에는 원 환경 물재생 시스템,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난방 절감 시스템 등이 도입됐다.

GS건설은 '김포한강 센트럴 자이'에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 이 회사가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시공한다. 환경보호와 함께 전기차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회생형 승강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높이고 불필요한 환경오염은 줄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견 중소건설사들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희건설 '광안명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오피스텔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또 친환경 마감재와 무석면 자재를 사용해 시공한다.

효성도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비롯해 계열 폐수용 환기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폐열 회수용 환기시스템은 냉난방 후 남는 에너지 혹은 외부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오염된 공기는 배출하는 친환경 첨단 설비로 주목 받고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건설사들이 녹색경영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속속 개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에코 프렌들리(Eco Friendly)' 주택이 대세가 되고 있다"며 "환경보호는 기본이고 관리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친환경·신재생 기술 여부에 따라 주택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현희기자 pso1820@metroseoul.co.kr

삼바열정을 한국에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브라질 무용수들이 삼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월드컵 분위기를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15일까지 전점에서 '바바 브라질 페어'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고객이 기증한 TV로 도로를 만든다?

'퍼주는' 사회공헌 대신 이익도 내는 'CSV'

기업들이 한 차원 진화된 사회공헌활동(CSR)을 펼치고 있다. 바로 공유가치창출(CSV)이다.

CSV는 2011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기업이 사업 기회를 발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퍼주기만' 하는 기업들이 받을 건 받되' 이를 사회에 돌려주는 셈이다.

글로벌 TV시장 1위 삼성전자는 고객이 반납한 브라운관 TV를 보도블록으로 재생해 수원 축구 전용구장에 친환경 길을 조성하는 CSV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납된 브라운관 TV는 중금속 용출 등 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져 유해 잠에 좋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여 는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다시 태어나 '승리 기원의 길' 조성에 쓰인다.

이는 삼성전자가 13일까지 '삼성전자 S.브라보즈, TV 굿스위칭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하는 '승리 기원의 길 - TV 로드' 캠페인 덕이다.

'승리 기원의 길 - TV 로드'는 글로벌 축구 축제를 맞아 '풍명보 스페셜TV(H5800)'를 구입한 고객들이 브라운관 TV를 반납하면 브라운관 유리를 재생해 만든 보도블록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승리를 기원하는 길을 만드는 캠페인이다.

'미러리스 카메라 - 펜 시리즈'로 유명한 올림푸스는 클래식 공연 대중화와 젊은 아티스트 양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 손잡고 아이프 영상홀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아이프 영상홀은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야프(ARKO Young Art Frontier) 프로젝트 중 음악분야 전정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젊은 음악가 그룹이다.

중요한 것은 매달 서울 본사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3만3000원(전석)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공연장 대비 반값도 안되는 수준이다.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CSV 활동은 고객의 참여 덕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쌍방향 공헌 활동인만큼 다이내믹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훈기자

은행·카드사 300여명 징계

국내 은행과 카드사 임직원 300여명이 이달 말에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하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 임직원만 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50여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제재 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을 일으킨 금융 사고를 모두 모아 이달 말에 제재하다 보니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징계로 사전 통보했다가 각종 로비로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분히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 제재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기자

"베트남 펀드 돈 되네…"

경기회복 국면 판단 외국인 러브콜 이어져

베트남이 조금씩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의 불안 등에 우려스러지만 외국인의 투자 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봤다.

1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베트남 공모펀드 15개는 연초 대비 모두 플러스 수익을 냈다.

수익률 1위는 '동양베트남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A'로 이 기간 17.8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양베트남민영화혼합증권투자신탁 2'와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증권투자신탁 1',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주식혼합)종류A', 'KB베트남포커스9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A' 등 여러 운용사의 상품이 나란히 10~14%대 성과를 올렸다.

이들 펀드는 공통적으로 베트남 증시의 주요 대형 상장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 시총액 상위 25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70%가량을 차지한다.

가장 많이 수익을 낸 동양자산운용의 배당 펀드는 포트폴리오에서 베트남 유제품 선두업체인 비나밀크(7.94%)를 가장 많이 편입했다.

베트남 석유탐사 독점권을 가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6.62%)과 호치민시 최초 증권사이자 최대 규모의 사이공증권(6.32%) 등이 뒤따른다.

베트남 증시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에 연초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6주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베트남 주가지수(VN지수)는 559포인트로 마감해 560선 아래로 내려왔다. 2007년 말 1100선까지 올랐다가 2009년 235선으로 곤두박질한 뒤 올 초 5년 만에 600선을 회복하고서 등락을 거듭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여전히 8주째 순매수 행진을 잇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외국인 친화적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감이 나타난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가 증권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상한선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증권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매수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달 이래 베트남 증시의 하락을 불러 온 베트남 시위와 현지 최대 민간은행인 아시아상업은행(ACB)의 창업주 비리 문제가 복병으로 남아 있다.

윤 연구원은 "베트남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외 여건에서 테이퍼링(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어 당분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지의 정치학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지수 반등 폭이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metroseoul.co.kr

외국인 2개월째 주식 순매수

중동 자금 유입 두드러져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2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채권은 석달째 순투자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사들여 4월 3조8000억원에 이어 순매수를 나타냈다.

세계 경기 회복에의 기대감과 지배구조 개편 문제에 따른 삼성그룹주 강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지역별 순매수액을 보면 중동과 아시아가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으로 많았다. 유럽은 1조1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1조20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5000억원) 등 중동계 자금이 순매수세를 이끌었다. 일본(4000억원)도 전달에 이어 순매수했다.

반면 영국이 1조3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케이맨아일랜드와 프랑스도 국내 주식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어치를 팔았다.

5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437조1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2.5%를 차지했다.

국가별 보유규모는 미국이 172조5000억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39.5%)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각각 36조2000억원(8.3%), 26조원(6.0%)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도 3개월 연속 순투자 상태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97조2000억원으로 4월보다 8000억원 늘었다.

싱가포르(5000억원), 태국·대만(각각 3000억원) 등 아시아 국가가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영국(-5000억원), 룩셈(-3000억원)은 순유출 상태를 보였다. /유현웅기자 [illegible]

친환경·에너지 기업 채용박람회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그리에이티브(Gree-ative) 2014 청년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가계 빚 696조원… '사상 최대'

한달만에 5조원 증가…3개월째 고공 행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5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688조1000억원) 이후 3개월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중 2조원이 줄었다가 2월과 3월에 각각 3조원과 2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4월 중 증가폭이 5조원으로 확대된 데에는 이사철 등 계절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주택매매 거래량은 3월 8만9394가구에서 4월에는 9만2691가구로 늘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25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4000억원 늘고 마이너스 통장에 예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270조원)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484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333조4000억원)은 2조5000억원, 기타대출(150조7000억원)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11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119조3000억원)이 1조3000억원, 주택담보대출(92조2000억원)이 9000억원 각각 늘었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 '유력'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6월에도 현 수준(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전문가 1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원(100%)이 이달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2.50%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기준금리는 13개월째 연 2.50%에서 동결된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기 부담감과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리 변동을 가져올 요인이 적다"고 판단했다. 아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유선준기자

쉐보레 스파크 후속, 이렇게…

오펠 아질라와 공동 개발…내년 국내 시판

쉐보레 스파크 후속 모델의 테스트 장면이 본지 카메라에 포착됐다.

2015년 국내 출시를 앞둔 이 신차는 전체적인 차체 컴태가 지금의 스파크와 비슷하다. 가장 크게 구별되는 모습은 뒤 도어의 손잡이다. 기존 스파크는 뒤 도어 손잡이가 창문 쪽에 붙어 있는데, 신형은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차체에 붙어 있다.

차체 스타일은 스파크와 비슷하지만 모델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됐다. 오펠 아질라(Agila)의 후속모델과 쌍둥이 차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의 아질라는 GM이 일본 스즈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시절 개발된 차로, 스파크보다 크기가 약간 크다. 한국GM은 GM의 경차 개발 본부이므로 스파크 후속과 아질라 후속 개발을 함께 맡아 일반 도로 테스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엔진은 1.0ℓ 가솔린 터보 타입으로 최고출력 90~115마력의 성능을 지녔다. 현재의 스파크와 마찬

스파크 후속 모델 /월드카팬즈닷컴 토르미디어 제공

가지로 전기차 버전도 추후 출시된다. 이 전기차에는 LG화학의 차세대 배터리가 탑재된다.

스파크 후속 모델은 5도어에 4인승 모델로 개발되고 있는데, 기본 가격은 1만3000~1만4000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쉐보레의 유럽 철수 방침에 따라 유럽에서는 오펠과 복스홀 버전으로 출시되며 데뷔 무대는 2014년 파리 모터쇼 또는 2015년 제네바 모터쇼가 될 전망이다. 한국GM 관계자는 "2015년 국내 출시를 앞두고 개발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스파크 후속 모델 생산을 위해 올해 초부터 창원공장 라인 재배치 공사를 해왔다.

/신의현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뉴욕현대미술관 디자인 우산 신세계백화점은 뉴욕현대미술관(MoMA) 디자인 스토어 '모마샵'의 예술 작품을 모티브로 한 '모마 우산'을 판매한다고 10일 전했다. /신세계 제공

'지상파 횡포'에 시청자만 피해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국과 가나의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재송신료 협상 난항…'블랙아웃' 우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도 유료방송업계에 대한 지상파의 추가 재전송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지난달 유료방송업계에 월드컵 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케이블 업계가 지난 5일 "추가 재전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상파 측에 전달했다. 이미 지상파 각 사별 280원의 재송신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방송을 재송신하는 데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재송신료 인상은 결국 시청자 피해로 이어진다. 재송신료가 올라가면 결국 유료방송업계는 이용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상파의 욕심에 시청자인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지상파의 횡포가 국민 대부분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유료방송업계에서 부담이 큰 쪽은 IPTV와 위성방송 업계다. 지상파는 IPTV와 위성방송에 대한 신호를 직접적으로 뺄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IPTV와 위성방송 이용자들은 월드컵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케이블 업계의 공문을 접한 한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가 임의로 방송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측은 지상파의 이런 발언이 결국 '갑의 횡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마저 IPTV나 위성방송처럼 직접 수신을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손쉬운 수신료 협상을 이끌어가려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대안 마련에 전무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지상파 관계자와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 청취를 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월드컵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간 협의를 잘해 달라"는 주문만 넘겼다. /이재영기자 ljy0403@

MS '엑스박스 원' 국내가 49만8000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원'의 국내 출시 가격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게임 박람회 'E3'에서 '엑스박스 원'의 국내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기는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49만8000원(VAT 포함)부터다. 패키지는 본체에 500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내장 와이파이가 장착돼 있다. 1개의 전용 무선 컨트롤러와 함께 신규 멤버를 위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 14일 무료 체험권'이 포함된다.

키넥트 포함 세트의 가격은 63만 9000원(VAT 포함)이다. 키넥트 유저는 동작인식, 생체 인식 로그인, 컨트롤러 페어링, 스카이프 비디오 채팅, 인스턴트 퍼스널라이제이션, QR 코드 스캔 등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키넥트 스포츠 라이벌', '데드 라이징3', '프로젝트 스파크' 등 키넥트의 강화된 기능을 활용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또 AAA급 타이틀인 '포르자 호라이즌2', '헤일로5 가디언즈'와 더불어 유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등 블록버스터급 독점 타이틀 라인업의 출시 소식에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zen@

SK텔레콤·KT, ICT한류 선도한다

상하이 MAE서 선보여

SK텔레콤과 KT가 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4(MAE)'에서 ICT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킬 융합 서비스를 선보인다.

MAE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의 아시아판 행사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인 GSMA에서 주관한다. 11일부터 3일 간 진행될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작년 약 2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이번 MAE에서 헬스케어, 스마트교육, 안전 서비스, 실내측위기술 등과 같은 융복합 상품 솔루션을 전시한다. 특히 SK텔레콤은 ICT한류 전파를 위해 스마트빔, 스마트로봇, 스마트 조록버튼 등을 소개한다.

스마트빔은 한 면의 길이가 4.5cm인 초소형 빔프로젝터로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연결해 최대 100인치 화면으로 영사해준다. 스마트 조록버튼은 납치·폭력 등 어린아이들이 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원터치 응급호출 서비스다. 아띠는 언어, 노래와 춤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스마트로봇이다.

KT는 이 행사에서 BMW 등 해외 기업과 함께 '미래의 모습'이라는 주제 아래 '기가와이파이'와 '기가와이어' 등 자사 기가 인프라 기술과 증강 현실을 활용한 한류 스타 포토박스 등을 포함한 융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가와이파이는 KT의 광동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최대 1.3Gbps 속도의 와이파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가와이어는 기존 구리선을 바꾸지 않고도 기존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제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는 솔루션이다. 또 올해 1월 시장에 출시한 K-POP 홀로그램 전시관 'K LIVE'를 경험할 수 있는 스타 포토박스와 스타라운지를 운영한다.

/서승희기자 sh@

HNT 하나투어리스트
스마트한 여행자들의 선택!
특가날짜를 잡아라!
6월~7월 15일 출발상품 한정!
WOW!
놀라운 가격에 믿을수없는 특전까지~
나는 하나투어리스트로 여행간다!
동남아시아
푸켓 6일
299,000
코타키나발루 5일/6일
299,000
세부 5일
299,000
보라카이 5일
379,000 429,000
캄보디아(앙코르왓) 5일
549,000
중국
홍콩 4일
379,000
북경 4일
239,000 269,000
장사/장가계/원가계 5일
479,000
삼청산/황산/무원 6일
399,000
백두산(서파)/고구려유적지/대련 5일
499,000
일본
규슈 4일
599,000 6월 17,24,29,30일/7월 1,6,7,8일
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4일
[3일] 449,000 6월 23일
[4일] 659,000 6월 17,22,23,24,29,30일
북해도 노보리벳츠 온천 3일
499,000 6월 22,29일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일] 549,000 7월 3,10일
[4일] 699,000 6월 23,24일
남규슈 전일정 온천욕 3일
399,000 6월 18,25일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中企 적합업종 착한규제 vs 나쁜규제

대기업 "실패의 길 걸을 것"… 사실상 폐지론 들고 나와
중소기업 "불공정되지 않도록 저지"… 제도흔들기 주장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또는 업종 확장이 제한된다.

지난 2011년 100여개 품목이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1차 기한이 종료돼 정부는 올해 새로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재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무슨 내용 담았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년간 시행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적합업종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적합업종 합의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개선안을 통해 연장기간까지 6년의 적용기간이 지난 품목은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계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일반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대·중소기업 간 합의시 자율하게 적용키로 해 혼란을 없앴다.

제도 운영단계도 개선됐다.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신청단체의 업종 대표성과 신청사유의 명확성 여부를 추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의 타당성 △대기업 제품과 직접 경쟁여부 △대기업 경쟁압박의 유의미성 △부정적 효과의 방지 등 평가 기준을 적용해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의견차 커

대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의견서에는 제도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투명성을 강조하며 동반위와 중소기업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처럼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 업종제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사실상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대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판부터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기 위해 대기업계가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전에 적합업종 제외 품목을 선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대기업의 해제 신청이 없을 경우 적합업종 자동 연장 △대·중소기업 간 '상시 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권고 위반 시 규제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대기업이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보다 잘못만 들춰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동반위의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kuei@metroseoul.co.kr

쥬비 ... 회원들 모임... 전국... 유통...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화, 친환경 나눔활동 사회 비춘다

'해피선샤인 캠페인' 4년째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받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의 역량을 사회공헌으로 연결한 '친환경 나눔활동'이다.

2011년 여름 처음 실시한 해피선샤인 캠페인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비영리기관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받고,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선정 및 설치 지원을 제공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한화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원용량은 약 200~220KWh 규모다.

한화그룹은 특히 캠페인 시행 4년을 맞아 지원 첫 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던 지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꾸준히 지원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금기자

세계 최초 터보 LPG차 현대자동차와 대한LPG협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6회 국제환경기술·그린에너지전에서 세계 최초로 터보 LPG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현대 쏘나타 터보 1.4 LPDi(LPG Direct Injection)'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것을 단순화하라"

SAP 사파이어 나우 행사 눈길

"세계 최고 수준의 UX(사용자경험)를 통해 비즈니스를 단순화할 수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업체 SAP은 미국 올랜도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연례 최대 행사 사파이어 나우를 통해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빌 맥더멋 CEO(최고경영자)는 "앞으로 SA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고객에게 SAP 피오리(SAP Fiori)와 SAP 스크린 퍼르소나(SAP Screen Personas)를 기본 제공한다"며 "기존 고객들도 향후 SAP 소프트웨어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SAP 피오리는 SAP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UX다. 태블릿,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 상에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사파이어 나우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sapphirenow.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구원기자 kmlee@

기아차 '월드컵 국민 응원 릴레이'

카톡 사진으로 파도타기 완성

기아자동차는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식 파트너 기념 '온 국민 응원 릴레이'를 실시한다.

참여자가 두 팔을 올리고 내린 2장의 사진을 공식 이벤트 사이트(fifaworldcup.kia.com)에 올리면 다른 참여자들의 사진과 이어져 거대한 응원 릴레이가 완성된다. 거리응원의 묘미인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월드컵 응원전을 온라인에서 구현해 참여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참여방식을 도입했다. 기아자동차 카카오플러스친구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접속하면 전용 대화 창에서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모바일 시대에 맞게 참여하는 방식 또한 SNS에 최적화 됐다. 이렇게 모인 참여사진들로 응원문구를 형상화해 응원도구로 제작, 브라질 현지 교민들이 한국전 응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브라질 월드컵이 주로 새벽에 열리게 됨에 따라 거리응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응원의 장점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사진 2장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응원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기아자동차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기아자동차의 '온 국민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역동적인 응원 모습을 담은 TV 광고, 디지털미디어 옥외 광고, 그리고 종목을 넘어 하나가 되는 '골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월드컵 승리 기원 파도타기 응원' 등 온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6월 한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김태곤기자 ferrari5@

IGF
세계적인 수입명품의 경연장!
2014
IMPORT GOODS FAIR
수입상품전시회

500명 직원 모두 정규직… 애사심 '쑥쑥'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하이모 ⑭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 전무
IT까지 접목 첨단 산업 변모
입사 6년이면 지점장도 가능

"당신에게 숱은 매력을 추천합니다. 모발 모발~"

가발을 멋지게 착용하고 등장한 이덕화의 모습이 인상적인 광고 덕분에 하이모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인구의 상당수는 실제로 하이모를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발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한 탓에 하이모의 숨은 매력을 아는 구직자는 아직 드물다.

◆5년간 매출 증가율 23%

1987년 가발을 수출하는 우단무역으로 출발한 하이모는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기로 유명하다. 이직이 활발한 업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가 많다.

이는 '사양산업'이라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영성과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이모의 매출은 2009년 518억원에서 지난해 642억원으로 성장했다. 5년간 매출 증가율이 무려 23%에 달한다.

26년 간 기간에 적자를 기록한 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전국 45개 직영점과 미국·중국의 4개 지점에서 일하는 500여명의 직원은 전부 정규직이다.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준이다.

연봉도 업계 최고를 자랑한다. 경력직의 경우 국내 중견 기업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고졸·조대졸 출신으로 스타일리스트(미용기술자)로 입사해도 평균 6년이면 지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현재 지점장 절반가량이 스타일리스트 출신이다. 다른 회사처럼 해외 워크숍을 가거나 멋진 사옥이 없어도 직원들의 애사심이 넘치는 이유다.

이 덕분에 하이모는 2013년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에 뽑히기도 했다.

◆매년 2번 타운미팅 소통 활성

하이모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매년 2번 열리는 타운미팅을 통해 웬만한 벤처기업 못지않은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다. 영업·관리·생산 등 부문별로 열리는 타운미팅에서 다양한 제안과 개선 방안은 물론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국내 가발업계 최초로 가발 제작에 모시를 이용한 '한산 모시명작'과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분장기술을 가발에 도입한 '할리웃 HD' 등도 타운미팅의 결과물이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의 특성상 직원 교육도 철저하다. 최신 패션, 헤어 트렌드에 대한 교육은 물론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서비스 예절도 배우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가발피팅과 커트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한 직원에게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원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고 있다.

이 밖에 매년 4번의 성과급과 각종 업무수당, 통신비, 교통비(자가 유지비) 등도 지원된다.

◆하반기 40명 채용 예정

하이모는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들어 50여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올 하반기에도 40여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하이모 홈페이지(himo.co.kr)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채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하이모 직원들이 사내에서 가발피팅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인재를 원한다

탈모인 마음 이해 중요

"하이모 직원들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평생직장을 꿈꾸는 구직자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박찬준(사진) 하이모 인사팀장은 주인의식이 투철한 구직자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양산업이란 인식이 강한데.

▶▶가발 산업은 패션과 나자인, IT까지 접목된 첨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 16%가 탈모를 걱정해야할 만큼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술 담배는 끊어도 가발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 로열티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근무여건은 어떤가.

▶▶연장 근무가 많은 업계 다른 기업과는 달리 오전 10시 출근 8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임신·육아 출산 등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능동적이고 서비스 정신이 강한 인재를 선호한다. 특히 하이모를 찾는 주 고객층인 탈모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면접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탈모 고민을 상세히 털어놔 합격한 사례도 있다.

/이국명기자

월드컵 보고 돈도 벌자

스태프·배달 등 이색 알바

월드컵 특수를 노린 이색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시즌을 겨냥한 응원도 하고 쏠쏠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알바 3종을 소개했다.

◆응원전 스탭 알바=단체 응원전 참석자 명단 확인부터 자리 안내, 주변 정리까지 행사 시작 전부터 뒷정리까지 행사 가이드다. 바이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되는 '아디다스 FIFA 온라인 3' 행사를 위한 남녀 스태프를 모집 중이다. 13일부터 1개월간 일하게 된다.

◆야식배달 알바=야식을 즐기며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야식족이 많아지리라 예상되면서 단기간 야간 배달을 전담할 알바생을 뽑는 배달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광고 전송 알바=월드컵 중계 준비와 경기 시간 내에 온라인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주요업무다. PC활용 능력과 축구경기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더블유코퍼레이션 등에서 모집 중이다. 시급은 7000~8000원으로 심야근무를 하면 교통비가 별도로 나온다.

/이국명기자

'맞춤형' 준비하면 취업 뚫린다

채용박람회 200% 활용법

취업박람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상반기 공채를 놓친 구직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취업박람회 200% 활용법을 알아본다.

◆사전 신청은 필수

16일 KB국민은행이 코엑스에서 '2014 KB굿잡 우수 기업 취업박람회'를, 18일 성북구와 강북구가 함께 '2014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를 연다. 온라인에서도 30일까지 인크루트가 정보통신 내일박람회를 진행중이다.

이들 박람회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 채용박람회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입장이 가능해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력서가 사전에 전달돼 컨설팅 등의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목표를 조준하라

무작정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받는 쇼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업종, 직종의 기업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맞춤 이력서로 무장하라

인사담당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화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하는 기업을 선택한 후 해당 기업과 직무를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취업박람회에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옷차림과 말투는 필수다.

◆부대행사도 꼼꼼히

취업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 등 부대행사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KB굿잡 박람회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심층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프리미엄'으로 고객잡기

외식·유통업계, 2배 비싼 커피·특화된 원료 사용 등 눈길

최근 소비자 사이에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직접 비교하거나 프리미엄, 웰빙 등 자신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외식·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신메뉴나 제품 개발은 물론 브랜드 자체의 프리미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를 찾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프리미엄 커피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오픈했다.

이 곳은 스타벅스 본사 개발팀이 수백 종의 커피 원두 가운데 고른 희귀원두를 진공압착 기술을 이용한 '클로버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를 기존 커피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희귀성과 고급스러움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오리지널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는 완도산 김, 남해산 멸치, 일반 쌀보다 1.3배 큰 '신동진 쌀'로 지은 밥을 사용하는 등 식재료 선정에서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문과 동시에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가치로 승부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

고려은단의 비타민C 제품은 국내 시판 중인 고함량 비타민C 제품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인 DSM사로부터 영국산 비타민C(Ascorbic Acid 97%) 원료를 독점 계약해 생산하고 있다.

이 원료는 중국산 비타민C 원료 가격에 비해 약 4배 가량 비싸지만 뛰어난 안정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대체 완비, 세계적인 품질보증 제도인 퀄리C(Quali-C) 인증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기자 pms@metroseoul.co.kr

월드컵 기념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10일 신제품 '싸커 도넛' 출시를 기념해 광화문 동아 광장에서 사진행사와 고객 이벤트를 벌였다. 삼바 콘셉트의 모델들이 도넛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제공

커피업계 "고정관념을 깨라"

탄산커피·소금라떼 등 다양

점심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어느덧 일상이 됐다. 커피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에 커피전문점들이 잔뜩한 초창기만 해도 주로 카페모카와 같이 달콤한 커피를 주로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메리카노 또는 에스프레소 샷 제품 중심의 원두 그 자체의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근엔 한발 더 나아가 탄산수 커피, 소금라떼 등 신개념 커피 메뉴들이 출시되면서 커피업계는 또 다른 커피 음용 문화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더블샷 에스프레소에 미네랄워터 '에비앙'과 탄산수 '트레비'를 활용한 '스페셜 아메리카노 2종'을 출시했다.

정수된 물을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미네랄이 풍부한 고급생수나 탄산수를 활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키스 오브 에비앙'은 에비앙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제품이며 '키스 오브 트레비'는 탄산수 트레비의 청량감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달콤커피는 에스프레소를 직접 얼린 얼음 큐브와 달콤한 꿀을 넣은 '허니큐브'를 출시했다.

허니큐브는 시원한 우유 위에 커피얼음인 '큐브'를 큼게 갈아 얹고 꿀을 벌집모양으로 드리즐한 제품으로 달콤한 아이스라떼를 스무디처럼 먹는 색다른 맛을 주고 살짝 저어 먹으면 큐브에서 나온 에스프레소의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다.

라떼킹은 이달부터 짭짤한 '소금라떼'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카페라떼에 소금을 더한 것으로 원두와 소금이 만나 풍부한 커피 향과 짭짤한 소금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 업체는 이 외에도 와사비라떼, 홍삼라떼 등 독특한 재료와 결합한 개성만점의 메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커피빈은 에스프레소와 맥주를 혼합한 커피 메뉴인 '카페 콘 비라'를 선보이고 있다.

일명 '성인커피'라고 불리며 구수하고 시원한 맛으로 흑맥주를 연상케 하는 제품이다. 바리스타가 맥주와 에스프레소를 따로 가져와 손님 앞에서 맥주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두 음료가 섞이는 모습을 보며 시각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양성운기자

우체국쇼핑, 위메프와 판로 '맞손'

우체국쇼핑(mall.epost.kr)을 운영중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이훈호)은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우리농수축산물 및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MOU)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우체국쇼핑은 지난 29년간 소비자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위메프의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주문 시에는 산지 우체국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하게 된다.

또 양측은 민·관의 상생 협력모델로 농어촌과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에 앞장서고, 생산자와 직접 인터넷 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에 앞장서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내에 '우체국쇼핑 브랜드관'이 별도 운영되며, 농어촌 판로개척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해 위메프 고객을 위한 우체국쇼핑 특가상품을 선보인다.

현재 우체국쇼핑 브랜드관에서는 금산의 통째먹는 세척수삼, 청도의 아이스홍시, 보령대천 조미김, 영동 포도즙, 강원도의 무항생제 인증 백반석 구이란, 대추방울토마토, 껍질째 비로 먹는 세척사과 등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있던 우리특산물을 별도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효열 우체국쇼핑사업실장은 "앞으로 위메프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우체국쇼핑의 품질 좋은 우리특산물을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판로개척 지원과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문의 가까운 우체국/1588-1300 /양성운기자

우체국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훈호 원장(사진 오른쪽)과 위메프의 박은상 대표가 국산 농수축산물 및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제공

네스프레소, 고강도 커피 '포티시오 룽고' 재출시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의 '포티시오 룽고(Fortissio Lungo)' 그랑 크뤼가 한 단계 높은 강도로 재출시됐다.

출시된 지 5년만에 새롭게 재출시된 이 제품은 네스프레소의 룽고 커피 카테고리 중 강도가 가장 높은 커피로 이전 버전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 8로 선보였다.

'룽고'란 에스프레소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 더 오래 추출하는 커피로 네스프레소에서는 110㎖가 룽고 사이즈이다.

네스프레소 커피전문가들은 커피의 강렬하고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원두를 강하게 볶는 다크 로스팅과 원산지의 블렌딩을 연구해왔다.

포티시오 룽고는 중남미산 아라비카 원두가 가진 깊고 풍부한 맛과 약간의 산미감을 기반으로 인도 몬순 지역 말라바 아라비카의 바디감을 지닌 커피이다. 두 가지 원두를 개별 로스팅해 풍부함을 유지한 것도 특징이다.

회사 측은 포티시오 룽고 커피 개발을 위해 커피 농가 지원 프로그램인 'AAA 지속가능 품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농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인텐소', '에스프레소', '룽고', '디카페인', '베리에이션', 투어 오리진 총 6가지의 네스프레소 그랑 크뤼 카테고리 중 룽고 영역에 해당하는 포티시오 룽고는 110㎖의 룽고 사이즈로 추출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 단단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 우유를 첨가해 라테로 마시면 강렬한 맛과 함께 풍부한 우유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조지 개룡 한국 네스프레소 대표는 "강렬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보다 큰 룽고 사이즈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강도 높은 커피를 선호하면서도 추출량이 많은 커피를 즐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뉴스&뉴스

'나포츠족' 공략 상품 잇따라 출시

빛 반사 기술 접목해 안전 도와, 해충 막는 '안티 버그'도 눈길

최근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곳곳에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서 야간에 산행, 러닝, 트레킹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나포츠족(Night와 Sport의 합성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저녁은 자외선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 보다 쾌적하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야간 스포츠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어두운 밤에 즐기는 활동인 만큼 야광 기능을 장착해 눈에 잘 띄도록 한 제품과 해충 퇴치 기능까지 겸비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어둠을 뚫고 발광하는 '빛'

캠브리안에서는 야간 산행에 최적화된 퍼스트 스톰 시리즈를 최근 선보이며 나포츠족의 이목을 잡고 있다. 시리즈 전체에 네온 컬러와 포인트 빛 반사 지퍼, 3D 야광 와펜을 적용해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3M 재귀반사 기능을 적용한 파라오 팬츠를 최근 출시했다. 기존 재귀반사 소재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색상 구현을 글라스비즈 기법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법은 미세 입자를 분사한 후 가공한 것으로 빛 반사 면적을 넓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킷 전면에 빛 반사 기능을 접목한 이젠벅의 지렌즈 라켓 윈드재킷은 야간 활동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최근 출시됐다. 20데니어 방풍 소재를 적용해 한낮에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상·하의 제품은 물론 나이트 스포츠의 필수품인 신발에도 빛을 발하는 제품이 눈에 띈다.

신발 측면에 형광 빛을 저장했다가 어두워 졌을 때 축적된 빛을 발광하는 축광 프린트 슈퍼하부터 어떠한 각도로 빛을 비춰도 원하게 반사시켜 밤 거리를 밝히는 트레일 러닝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진드기, 모기 등 해충 접근 차단!

여름철 야간 아웃도어 활동의 최대 불청객은 다름아닌 벌레다.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해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들을 출시해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름밤 산행, 운동을 돕고 있다.

아이더는 최근 안티 버그(Anti bug) 소재를 적용한 코만지와 오스카 재킷 2종을 선보였다. 국화류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인 퍼메트린(Permethrin)을 섬유에 주입해 아외활동 시 진드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의 접근을 방지해준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머렐의 마이코 7부 팬츠는 모기 등 해충이 기피하는 특수향이 첨가된 안티 버그 소재를 적용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이태리 국제 박람회 참가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신진 디자이너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국내 남성복 브랜드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는 제86회 삐띠워모 이태리 국제 남성복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 지원사업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올해는 남성복 분야 4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선정된 브랜드로는 기남례의 바스통, 서병문의 뱅뮤서, Don Kim의 위스티지, 황재근의 재균 등이다.

이 브랜드들은 삐띠워모 트레이드쇼 2시즌(2015 봄·여름 및 2015 가을·겨울) 참가 시원 및 브랜드 컨설팅 등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미니골드, A/S 무료 배송

● 대전 주얼리 브랜드 미니골드(대표 노만규)는 주얼리 업계 최초로 A/S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거리가 멀어 제품 수리를 받기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A/S 제품 발송에 필요한 택배비 전액을 미니골드 측에서 부담한다.

A/S 서비스는 이 브랜드 지정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을 통해 착불 발송을 신청한 다음 브랜드 홈페이지 내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A/S 요청 내용을 남기면 진행이 완료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제품과 함께 상품 보증서도 보내야 한다. /김학철기자

국가대표팀 공식 수트 삼성에버랜드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GALAXY)는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5층 갤럭시 매장에서 축구 국가대표 공식 단복인 프라이드 일레븐(Pride 11) 수트를 비롯해 프라이드 컬렉션 라인 등 선보였다. /삼성에버랜드 제공

나이키, 국내 최대 단독매장 오픈

13일 강남대로에

강남대로에 590평 규모의 나이키 매장이 들어선다. 스포츠 브랜드 단독 매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나이키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핵심 도시에만 있던 초대형 매장의 국내 진출을 알리며 나이키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를 13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장 1층에는 러닝과 여성용 제품군이 마련되고 2층에는 축구와 키즈 카테고리가, 지하 1층에는 농구·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를 대표하는 특정 조형물이 이 곳을 채워 마치 현대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내 강남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나이키 우먼스 전문 대형 매장이기도 하다. /김학철기자

여름 오피스룩, 단정하고 산뜻하게

네온보다는 파스텔 색상으로

직장 여성들은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이 많다. 요즘은 옷차림이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커리어 우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피스룩은 근무 환경과 업종 등 T.P.O(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센스있게 연출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에는 모노톤의 색상보다는 산뜻한 블루, 핑크, 화이트 등의 밝은 색으로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며 단 너무 강렬한 네온 컬러보다는 옅은 파스텔 컬러가 단정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킷 없이 스타일링을 할 경우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데 이때는 너무 튀지 않는 액세서리나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재의 믹스 매치나 밑단 길이가 다른 제품, 어깨 트임 등의 디자인이 가미된 옷이 제격이다.

오피스룩은 원피스와 스커트를 빼곤 논하기 힘들다. 원피스가 단정한 실루엣이라면 그 자체로 격식을 차릴 수 있고 특히 플라워 패턴은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반면 스커트는 디자인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되는데 세련된 느낌을 원한다면 A라인 스커트가 좋지만 자칫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대부분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오피스룩 아이템은 재킷이다. 격식을 차린 정장은 물론 캐주얼한 차림에도 재킷 하나만 걸치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모습이 되므로 오피스 레이디들에게 재킷은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 브랜드 에스쏠레지아의 김정은 팀장은 "에스쏠레지아의 경우 전체 제품 중 재킷이 70%에 달하는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사 재킷이 고유의 패턴을 적용해 군살을 커버하고 슬림한 핏을 잘 잡아주기 때문"이라며 "특히 여성의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재킷은 엉덩이를 약간 덮는 길이가 대부분이며 그 길이는 약 27인치"라고 말했다.

여름철이라도 격식이 필요한 장소에는 쉬폰 소재 등으로 가볍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재킷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김학철기자

★★★★★
위로가 절실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연극!!
가을 반딧불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 좌충우돌 명랑스토리
2014. 6. 19 (Thu) - 7. 20 (Sun)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평일 3시(수 3시 공연있음) / 토 3시, 6시/ 일 3시(월 공연 없음)
예매처 SACTicket, 인터파크, YES24, 옥션티켓, 티켓링크, 조은컴퍼니(02-765-8880)
출연 조연호, 김정호, 이도엽, 김한, 진선규, 양소민, 정연, 오의식, 김지용
협찬

몸에 좋은 음식 성분 피부에 접목

뷰티 브랜드 영양소 함유한 에센스 선봬

슈퍼푸드·파워푸드·웰에이징푸드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장품 시장에서도 이 음식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소화를 통해 흡수해도 건강에 좋지만 피부에 직접 바를 때에는 또 다른 효과를 내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레드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항노화 효과로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던 성분이었다.

시세이도는 이 성분에 항노화 효능뿐 아니라 피부 속 멜라닌 생성과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화이트닝 효과도 있다는 것에 착안해 '오벌세럼'(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피부 피하층부터 진피, 표피, 각질-표면층까지 피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층에 알맞는 기능으로 화이트닝을 실현한다.

미역, 다시마 등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많아 체내의 중금속은 물론 독성물질과 콜레스트롤, 포도당 등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디톡스 기능을 한다.

다음의 에센스 '캡춰 토탈 원 에센셜'은 다시마의 천연 추출물인 디톡시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부 세포의 독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플랑크톤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중 유럽 피레네 산맥 온천수에 사는 라이프 플랑크톤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면 그 효능을 잃기 쉬운 예민한 성분이다. 비오템은 이 라이프 플랑크톤의 효능을 제품에 담을 수 있는 독자 발효 공법을 개발해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공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름 개선과 부스팅 효과를 준다.

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스쿠알렌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피를 맑게 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키엘의 '미드나잇 리커버리 컨센트레이트'는 식물성 스쿠알렌을 함유한 에센셜 오일로 피부를 보호해주고 밤 사이에 피부 손상을 회복시켜준다.

/황재용 기자 hsung@[illegible]

손글씨로 내 마음 전해볼까

개성 살린 캘리그라피 인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감성이 담긴 메시지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가 인기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선문 손글씨 기술을 뜻한다. 90년대 말 뷰티 드라마·영화·책 등 문화 상품에 사용된 캘리그라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붉은 티셔츠 속 'Be The Reds'를 기점으로 다양한 산업디자인에 적용되기 시작됐다. 이후 동선 가전·광공 등의 광고, 드라마와 영화 타이틀, 뮤직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개성과 특징이 묻어나는 손글씨도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잘 생겼다' 광고 속 전지현의 캘리그라피와 하정우의 LTE-A '넓고 빠른' 은 공개되자마자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영화 '군도'와 드라마 '정도전'의 타이틀 등 캘리그라피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배우 조달환은 코카콜라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서체를 가지고 싶어 하며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도 크게 늘어났다. 각종 문화센터와 학원에서는 강좌가 열리고 회사에서는 동호회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또 손쉽게 캘리그라피 작업을 할 수 있는 펜의 인기도 급증하고 있다.

쉐퍼(Sheaffer)의 '캘리그라피 만년필'은 원형 오목라운드 패턴의 고무 재질로 편안한 그립감을 가졌으며 잉크 잔량 확인창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또 펜촉 모양이 끝이 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자연스럽고 독특한 레터링 기술을 표현할 수 있다.

동양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겐 붓펜이 인기다. 플래티넘(Platinum)의 '붓펜'은 식상 변경이 불가능하고 일회용이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잉크카트리지 교환 방식으로 제작됐다. 또 적당한 탄력을 가진 붓모를 사용해 필기감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색감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지그(ZIG)의 '캘리그라피 펜'이 적당하다. 이 펜은 2㎜와 3.5㎜ 굵기의 두 가지 촉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트윈 펜으로 15가지 색으로 구성돼 있다.

/정지[illegible] 기자 sunjall404@metroseoul.co.kr

브라질의 맛을 담은 피자 도미노피자가 1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신제품 '슈하스코 치즈롤 피자' 출시를 앞두고 전속 CF모델 김무열과 론칭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 제품은 브라질 특유의 깊고 진한 치미추리소스로 양념한 소고기 안심살과 각종 야채를 숯불에 구운 브라질 전통 음식인 슈하스코 토핑들이 어우러진것이 특징이다. /도미노피자 제공

그랜드 힐튼 서울, '여름 패키지' 행사

오는 16일부터 다양한 문화 체험도 가능

그랜드 힐튼 서울이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원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패키지'를 선보인다.

먼저 본관에서 투숙 가능한 '서머 아트 스토리 패키지'는 아이스커피 2잔, '힐튼 덤블러', 대림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전시회 티켓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18만2000원부터 35만원까지다.

이와 함께 호텔 내에 위치한 그랜드 스위트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서머 레이디즈 패키지'와 '서머 패밀리 패키지'가 준비된다.

서머 레이디즈 패키지를 이용하면 최대 6명까지 투숙할 수 있는 객실에서 레드와인, 치즈 플레이트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은 19만9000원부터 21만9000원까지다. 또

패키지 투숙객에게는 선착순 10명에 한해 재료비 지불 후 플라워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머 패밀리 패키지에는 최대 4명까지 투숙할 수 있는 객실에서 1박과 조식, 아이스크림 교환권 등의 혜택이 포함돼 있으며 가격은 20만5000원부터 25만원까지다. 선착순 10가족에게는 무료 베이킹 클래스와 무료 푸드 쿠킹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문의 02)2287-8400

/황재용 기자 hsoul38@

브라질 월드컵 안전해야 더욱 즐겁다!

정부 '여행 가이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브라질 월드컵 여행을 위해 '브라질 월드컵 안전여행 가이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대한민국 국토의 85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국가인 만큼 월드컵이 열리는 12개 도시의 치안 상황, 기후, 문화도 큰 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 즐거운 월드컵과 브라질여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 ▲포르투 알레그레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도시의 특성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이에 가이드는 브라질여행의 일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지 /한국관광공사 제공

반적인 안전수칙과 경기 개최 도시별 지역적인 특성 및 치안 상황, 여행 정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 관광공사는 브라질 여행 중 소매치기 및 강도 사건을 대비해 지갑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은 가방에 넣어 다니며 밤 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열리는 3곳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전역의 치안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를 브라질 전역에 발령한 바 있다.

브라질여행을 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인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흥분과 쾌감 폭발 성공을 좇아라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 설정 후 습관 바꿔야

출판계까지 북유럽 열풍이 불더니 이번에는 노르웨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자기계발서가 출간됐다. 우리에게 생소한 '멘탈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저자는 인간 본연의 욕구와 감정을 극대화 하는 기법으로 노르웨이 스포츠 스타와 비즈니스 리더들의 성공을 이끈 인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성공을 거뒀던 멘탈 트레이닝의 실제 과정을 그대로 옮겨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최고가 되라

엑빈 라프존/한빛비즈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저자는 성공을 위해서는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최고와 최고가 아닌 자를 가르는 것은 결전의 순간 올바른 선택과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다소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정신 상태는 희생이나 인내심 같은 고전적인 덕목이 아니라 쾌감과 흥분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폭발시켜 추진력을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머리 속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다만 선택지가 너무 많다. 게다가 변화를 두려워 한다. 변화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설정한다면 선택지는 단순하게 좁아들고 목표를 좇는 것은 기꺼운 일이 된다.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은 인고가 아닌 흥분으로 가득찬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다음부터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면 이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습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성공으로 이끈다.

결국 '최고가 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다. 다소 김이 빠지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이 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거창한 방법으로 갑작스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임한다면 결전의 순간 감연한 마음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다.

/정혜은기자 hyun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홍명보호 실전만 남았다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홍명보호의 지능적인 플레이였으리라 믿고 싶다. 선수들은 등번호도 바꿔 달고 나온 판에 허심히 전력을 최대한 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축구 팬의 기대가 오래상이 파도에 밀려든 무너져 내렸다. 잘 짤고 잘 잘았던 티키와 선수들까지 모여 만든 골든 멘트리가 하루하 보인다. 튀니지와 싸움을 봐도 그랬고 가나와의 평가전에서도 아프리카 국가에 팩을 못 추는 국가대표팀의 모습시가 골이 아니다. 월드컵 개막이 2일 앞이니 '실질 러시아전까지는 1주일 남짓 남았다. 이제 연습은 없다. 홍명보호가 팔열이 가리길지 잘길 바란다. -'더 홍명보호 스토리'(도이진/북오션) 중- /김학철기자

천금과도 같은 지혜, '말'을 말하다

화제의 책

천금말씨 차동엽/교보문고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감사와 희망의 이야기를 설파해온 차동엽 신부가 이번에는 감사와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소통'과 '힘'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한다.

대한민국 희망 멘토로 잘 알려진 저자는 언제나 감사와 희망을 말해왔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감사와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후 저자는 오랜 고민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감사와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야만 그 힘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드는 순환의 법칙을 소개하며 '힘 있게 말하기'와 '힘 있는 말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도 따뜻한 감성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말이다. 또 항상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말과 그 말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한다.

"누군가가 이 책으로 인하여 말의 본색을 파악하고, 말의 바람직한 쓰임새를 익혀 이로고 말의 소출을 알속 있게 거둘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말의 위대함을 다시금 배우게 된다.

설득력 가득한 저자의 '말발'을 통해 천금과도 같은 말의 지혜를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hsoul38@

새로 나온 책

인문

달변성의 철학과 포노로지 박성진/소나무

'한국인의 철학'으로 평가받는 저자의 포노로지(소리철학) 완성본이다. 저자는 자신이 꾸준히 제기해온 포노로지를 통해 현재 인간과 지구가 공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생·공존·공영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취미 스포츠

살고 싶은 집 짓고 싶은 집 김영관/한스미디어

집 짓기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혼란스러워 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건축가 12인이 지은 17채의 집을 통해 살아 있는 좋은 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다. 또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상식과 응용해볼 만한 기법,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시 루카 카이올리/중앙북스

축구 스타 메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저자는 메시의 어린 시절부터 축구계의 거물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의 모습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지칠 줄 모르고 질주했던 한 성실한 천재의 모습, 마라도나와 달리 집단과 동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겸손한 천재의 모습이 책에 잘 담겨 있다.

축구 명장의 이기는 독설 구와하라 데루야/니들북

축구감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다. 빅 클럽이나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 정도면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가득하여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수많은 팬이 있다. 감독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은 조세 무리뉴, 알렉스 퍼거슨, 거스 히딩크 등 총 15인의 세계 축구 명장들의 명언을 한 권에 묶었다.

자기계발

연봉력 사토 후미오/북스그룹하니

일본에서 손꼽히는 헤드헌터인 저자는 고액 연봉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입사 3년차에 결정 난다고 주장한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회사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사소해 보이는 기본 매너부터 회식에서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쌓는 법, 연봉의 타당성을 들여보는 법 등 회사생활에 필요한 자세를 전수하며 돈으로 이룬 성공을 넘어 개인의 행복한 미래까지 꿈꿀 수 있게 돕는다.

에세이

아빠 왔다 이채익/에이플스토리

MBC '컬투의 베란다쇼',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등의 작가로 유명한 저자가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 엮은 살아있는 딸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북 아티스트 김예미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함께 담았다. 저자는 남자는 결혼을 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되어 철이 든다며 아이와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거듭하며 느낀 '육아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예술 대중문화

더 클래식 문학수/돌베개

이 책은 실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클래식 가이드로서 손색없다. 총 세 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걸작' 101곡을 소개한다. 그 중 첫 권은 바흐에서 베토벤까지의 음악 34곡을 담았다. 본격적으로 어떤 곡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다.

요리

과일 효소 디톡스 레시피 소지 히즈미/리스컴

책은 탁월한 해독 효과로 인기가 많은 과일 효소를 담그는 방법과 효소요리 레시피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효소를 담그는 과정은 물론 효소가 발효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 초보자도 쉽게 레시피를 따라하게 만든다.

소설

어젯밤 카레, 내일의 빵 기자라 이즈미/은행나무

결혼 후 2년이 지나 먼저 곁을 떠난 남편 가즈키와 그의 아내 데쓰코, 그리고 시아버지 렌타로의 이야기다. 남편의 죽음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데쓰코와 렌타로의 일상이 꾸밈 없지만 소소한 말들로 서서히 가슴에 스며든다.

영화 황제를 위하여

박·성·웅

"멜로 전공인 비주얼 깡패"

부산 최대 규모 조직 보스 캐릭터 맡아
이미지 소비 우려 섬세한 연기로 극복

배우 박성웅(41)은 2012년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이정재·황정민 등 쟁쟁한 배우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박성웅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에게 이중구 캐릭터는 마치 잘 맞는 수트 한 벌 같았다. "살려는 드릴게",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등의 유행어를 남긴 조연 캐릭터에 관객은 열광했다. 이후 그는 주로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맡으며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구축했다. '이미지 소비가 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는 "연기를 보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 이중구부터 정상하까지

'황제를 위하여'에서 그가 연기한 정상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조직 황제 캐피탈의 대표다. 상하와 이중구가 겹쳐 보인다는 질문에 그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상준 감독이 이중구를 보고 캐스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중구랑 상하는 우선 하드웨어부터가 달라요. 단순하게 보면 중구는 서울이고 상하는 부산인데 느낌부터가 다르죠. 캐릭터 자체는 다르지만 혹시나 비슷하게 보일까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상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 중구가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죠. 또 제가 상하에게 끌린 이유는 의리 있는 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랑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실제 박성웅은 대학 야구 동아리 '의대 빡파스'의 창단 멤버로 아직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창단 가수 중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멤버라고 했다. "딱 19년 됐는데 그게 그냥 19년이 아니에요. 뭐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박성웅의 의리는 카메오 출연으로도 이어졌다. 카메오도 건달 역을 맡은 경우가 있어 깡패 이미지가 붙을 수도 있다. 그는 "아마 이중구로 불었다. 상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 깡패'다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나는 비주얼 깡패"

정상하와 이중구같은 '멋있는' 깡패 역할이 그에게 유독 잘 어울렸던 이유는 187㎝의 큰 키에 중저음의 목소리도 한 몫 했다. 그는 스스로를 '비주얼 깡패'라고 칭했다.

"제 고향 충주에서 20년을 살았고 서울에선 21년 정도 살았어요. 이중구 캐릭터는 제게 있어서 고향 같은 존재예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줬으니까요. '황제를 위하여'의 정상하는 마치 서울처럼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이고요."

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영화 속 캐릭터와는 분명 다르다. "상하를 연기하기 위해서 촬영 두 달 전부터 부산 사투리 연습에 매진했어요. 작가가 부산 출신인데 본인 전 대사를 읽어서 스마트폰 녹음 파일로 보내줬어요. 전 그걸 들으면서 연습했죠. 나중엔 작가도 상하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황제를 위하여' 대본은 그가 억양을 모두 표시해 뒤 마치 악보 같았다고 한다. 그는 '까라카네'라는 짧은 대사를 연습하는데도 몇 번이나 억양을 체크했다고 한다. 덕분에 시사회 직후 그의 사투리 연기는 우선 합격점을 받았다.

◆ "내 전공은 멜로"

그는 차기작 '무뢰한'에 등장할 베드신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고 한다. 아내 신은정이 싫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 좋아한다"며 "하지만 극에 필요한 거니 이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에서 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아내의 힘이 컸다고 말해 왔다. '배우' 박성웅은 영화 속 이미지와 분명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를 이중구로 바라본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고등학생이 왔어요. 공부 잘하라고 욕 좀 해달라고 말하길래 '열공하면 살려는 드릴게'라고 했더니 좋아하더군요"라며 팬의 성원에 고마워했다. 건달이 아닌 해보고 싶은 역할에 대해 그는 "사실 내 전공은 멜로"라며 "내년쯤 '신세계' 후속편이 제작되면 난 당연히 또 이중구로 나온다. 하지만 당분간 건달 박성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kimjm@metroseoul.co.kr
사진/황존화(그랜드제이)·디자인/최송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드라마가 온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6월 16일 (월) | 밤 11시 | tvN 첫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여름댄스 가고 촉촉 발라드

차트 상위권 절반 이상 장악 강렬함보다 듣는 즐거움 선물

달콤한 발라드 계열의 음악이 국내 음원차트를 장악했다.

올 상반기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일렉트로닉 댄스곡이 주를 이뤘던 음원시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최근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국내 온라인 음원 차트의 실시간 10위권 중 절반 이상이 감미로운 멜로디의 발라드다.

10일 공개된 비스트의 신곡 '이젠 아니야'는 8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비스트가 새 미니앨범의 선공개곡으로 10일 출시한 '이젠 아니야'는 멜론,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8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발라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젠 아니야'는 멤버 용준형과 작곡가 김태주가 함께 만든 감성 발라드다.

또 듣는 음악으로 돌아온 다비치도 음원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는 "다비치의 '헤어졌다 만났다'가 6월 1주차(6월 2일~8일)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헤어졌다 만났다'는 용감한형제와 다비치의 첫 정규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일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이다.

솔로로 컴백한 빅뱅 태양이 공개한 '눈,코,입'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눈,코,입'은 R&B 발라드로 미니멀한 연주를 통해 목소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태양이 홀로 슬로 비트를 타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는데 웃통을 벗은 조반은 미국의 R&B 뮤지션 디안젤로를 연상케 한다.

1년 4개월 만에 신곡 '여전히 뜨겁게'로 돌아온 백지영은 믿고 듣는 가수임을 입증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여전히 뜨겁게'는 발매 하루 만에 각종 음악사이트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백지영표 감성 발라드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여전히 뜨겁게'는 뜨겁게 사랑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한 여자의 마음을 백지영만의 감성으로 담아낸 곡이다. 백지영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의 매력을 가장 극대화한 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성은기자 yon@metroseoul.co.kr

백지영 다비치

"가치 있는 5분짜리 예술"

싸이 '행오버' 뮤비 세계 유력 매체 호평

싸이의 신곡 '행오버'에 대해 해외 유명 매체들이 연이어 호평을 쏟아냈다.

지난 9일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차례로 공개된 직후 미국 빌보드, 타임, 롤링스톤, 하이프비스트, 할리우드리포터 등 유수한 음악 잡지와 시사주간지가 일제히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또 MTV, 버즈피드, 컴플렉스, 뉴욕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CNN, NBC, ABC, BBC 등 다양한 전문 음악 매체와 종합뉴스, 방송사들도 신곡 발매를 비중있게 다뤘다.

빌보드는 '행오버'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주 재미있다"고 평하며 "도미노처럼 술잔 쓰러뜨리기, 와일드한 노래방, 당구장에서의 궁푸, 소용돌이치는 댄스비트, 그리고 스눕독이 있다"며 뮤직비디오를 간략한 키워드로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타임은 "'행오버'는 스눕독과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극찬하며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아줌마들과의 술 대결 등 몇몇 장면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5분이다. 뮤직비디오가 예술"이라고 평했다.

세계적인 웹매거진 하이프비스트는 싸이와 지드래곤의 깜짝 출연, 스눕독과 싸이가 온라인에서 함께 '행오버'를 작업한 것 등을 소개하며 이번 곡에 대해 "한국 K-팝 감성, K-팝 스타일과 스눕독의 만남"이라고 정리했다.

'행오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뉴시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싸이가 '강남스타일' 20억뷰 돌파 소식을 전해들은 후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다"고 전했던 소감을 상기시키며 "'행오버'는 싸이가 지킨 약속과 같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MTV는 "한국에서 스눕독과 뮤직비디오를 촬영가능한 시간이 18시간밖에 없었다. 스눕독의 계산은 8시간 촬영하고 10시간 파티하는 거였다. 그게 그의 생각이었고 솔직히 내가 스눕독을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었다"는 싸이의 말을 전하면서 "험한데부 스눕독이 싸이와 협업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인 10일 오전 유튜브 조회수 1300만 건을 돌파했고 빠르게 조회수를 높여가고 있어 신기록 달성에 관심이 쏠린다. 싸이는 '행오버'에 이어 올 여름 새 싱글이자 타이틀곡 '대디' 발표를 예고해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유순호기자 suno@

빅스 콘서트 9분 만에 7000석 매진

그룹 빅스(사진)의 첫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약 시작 9분 만에 매진됐다.

다음달 19~2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 '빅스 라이브 판타지아 헥스 사인'을 개최하는 빅스는 9일 오후 8시 옥션티켓에서 예매를 시작했고 9분 만에 7000석(2회)을 모두 팔아치우며 신인답지 않은 티켓 파워를 드러냈다.

이번 콘서트는 데뷔 2주년을 맞는 빅스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로 티켓 오픈 전부터 팬들의 높은 관심을 샀다. 소속사는 "예매가 시작되자 순간적으로 몰린 팬들로 인해 사이트 서버가 다운됐으며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일부 팬들은 기획사로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빅스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와 도쿄 등 해외에서도 콘서트를 개최한다. 빅스는 신곡을 낼 때마다 뱀파이어, 지킬앤하이드, 저주인형 등 판타지를 콘셉트로 한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대다나다너' '저주인형' 등의 히트곡을 냈다.

최근 발표한 네 번째 싱글 타이틀곡 '기적'은 쟁쟁한 가수들의 신곡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5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리쌍 개리, 숨은 한류스타

홍콩 3000팬 열광 … 아시아 전역 러브콜

가수 개리가 홍콩을 뜨겁게 달궜다.

10일 소속사 리쌍 컴퍼니에 따르면 개리는 지난 3월 홍콩 MCP에서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팬미팅에는 3000여 명의 팬들이 참석해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개리는 미리 준비해온 광둥어로 인사를 건넸다.

개리는 특유의 재치와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팬들은 BGM으로 흘러나오는 개리의 솔로 앨범 수록곡은 물론 최근에 발표된 신곡 '사람냄새'까지 한국말로 따라 부르며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리의 단독 팬미팅에는 홍콩 인기 스타 다다가 개리의 팬으로 참여해 함께 게임을 진행했다. 개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 줄 몰랐다. 현장 반응에 놀랐고 정말 감사하고 이런 자리자체가 영광"이라며 "홍콩 팬의 큰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팬미팅 소감을 전했다.

리쌍컴퍼니 측은 "홍콩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공연과 행사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정인과 개리의 디지털 싱글 '사람냄새' 또한 아시아권 차이튠즈 순위에 상위권 성적을 보이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리의 홍콩 팬미팅 현장

/정성운기자

10일 영화 '군도 : 민란의 시대' 제작보고회에서 윤종빈 감독(왼쪽)을 비롯한 출연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영, 윤지혜, 마동석, 조진웅, 하정우, 강동원, 이성민, 정만식, 김성균, 윤 감독. /손진영기자

하정우·강동원 "개그로 친해졌어요"

'군도' 주연 '남남케미' 자신… 서로 반전매력 칭찬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하정우와 강동원이 '남남 케미'를 자랑했다.

"현장에서 너무 웃긴다. 눈만 마주쳐도 웃겼다." 강동원은 10일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군도' 제작보고회에서 하정우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정우는 "강동원이 내 개그 패턴을 이해해줬고 서로 신뢰감을 갖고 개그를 주고 받았다"고 화답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강동원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바조적인 면이 있다. '군도' 멤버 중 가장 상남자"라고 의외의 모습을 전했다.

하정우는 극중 백정 출신으로 의적 무리 군도의 에이스인 도치를, 강동원은 탐관오리의 서자이자 백성의 적인 조윤 역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배역에 대한 고충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영화에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기르는 등 거친 모습으로 변신한 하정우는 "매일 아침 머리를 미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조반연 전기면도기로 밀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도구를 사용해봤다"고 재치 있게 소감을 밝혔다.

이 영화로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강동원은 "데뷔한지 10년이 넘어 겨우 사람답게 연기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적응하는 노하우조차 까먹었다. 촬영을 하며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속앓이를 심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제작보고회에는 윤종빈 감독과 조진웅·김성균·마동석·정만식도 참석했다.

제작보고회에서 서로를 보며 밝게 웃는 하정우(왼쪽)·강동원. /손진영기자

'군도'는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학위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0년을 배경으로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의적 무리 군도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으로 다음달 23일 개봉된다.

/박선영기자 tako427@metroseoul.co.kr

'못생남' 정우성, '문신남' 이범수

신의 한 수' 파격 변신 돋보이는 스틸 공개 화제

영화 '신의 한 수'에 출연한 정우성과 이범수가 파격적인 변신이 돋보이는 스틸을 공개해 화제다.

극중 형의 복수에 목숨을 건 전직 프로 바둑기사 태석 역을 맡은 정우성은 덥수룩한 머리와 턱 전체를 가리고 있는 수염으로 특유의 잘생긴 얼굴을 지웠다.

몸에 흙터 분장까지 한 그는 "상남자의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했다. 스케일이 큰 완성도 높은 액션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내기 바둑판계의 절대악 살수 역의 이범수는 전신 문신을 한 모습을 공개됐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더해 캐릭터를 표현한 그는 "겉으로는 지적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무시무시함을 갖고 있는 살수를 표현하고자 직접 전신 문신을 제안했다. 20시간 동안 서서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신의 한 수'는 범죄로 변해버린 내기 바둑판에 사활을 건 꾼들의 전쟁을 그린 액션영화로 다음달 3일 개봉된다.

/박건원기자

'신의 한 수'의 정우성.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제공

'미녀와 야수' 초대형 판타지 로맨스

'해리포터' '삼총사3D' 제작진 총출동

19일 개봉될 영화 '미녀와 야수'가 초대형 판타지 블록버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마담 드 빌뇌브의 오리지널 원작을 최초로 실사화 한 이 영화는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야수(뱅상 카셀)와 그를 사랑한 아름다운 벨(레아 세이두)의 운명적이고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제작비 4000만 유로(약 552억원)가 투입됐다.

뉴 '늑대의 후예들'로 제34회 시체스영화제 판타스틱 유럽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그는 특유의 카메라 앵글과 미장센을 활용해 연출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삼총사 3D' 등 할리우드 판타지 전문 제작진도 총출동해 판타지 세계를 스크린에 구현했다. 이들은 야수의 성과 거대한 숲 등의 배경을 실제 같은 세트와 특수효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완성했다.

의상 감독으로는 '본 아이덴티티' '향수' '삼총사 3D' 등의 의상을 담당했던 피에르-이브 게로가 참여했다. 그는 무려 100 페이지에 달하는 룩북(Look-Book)을 바탕으로 영화의 배경이 된 제1제정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려한 의상을 완성해 영화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박건원기자

슈주 최시원 '성룡 사단' 합류

슈퍼주니어 최시원(사진)이 성룡 사단에 합류했다.

10일 소속사에 따르면 최시원은 성룡이 제작과 주연을 겸한 중국 대작 영화 '드래곤 블레이드'에 출연한다.

'드래곤 블레이드'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모함을 당해 노예가 된 장수와 동방으로 도망쳐 온 로마 황자의 이야기를 담는 액션어드벤처 사극이다.

조만지 '천하대전' '삼국지 용의 부활' 등을 제작한 중국의 이인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또 할리우드 스타 존 쿠삭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최시원의 중국 영화 출연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묵공'으로 스크린에 데뷔했고 지난해 '볼리오스'에 출연해 중화권에서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

이번 출연은 성룡과의 인연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원은 과거 성룡 방한 시에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함께 출연했고 그의 60번째 생일 파티에도 초청됐다.

/박건원기자

날씨

6/11 水 일출 05:10 일몰 19:53

운동 부족과 음식 섭취 과다로 인한 복부 비만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현재 체질량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제공 : 신체정보 및 건강정보 (www.nihk.ac.kr)

캣우먼

대학원 논문 두렵고 힘들어요
절박감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Q Hey 캣우먼!
올해 서른 살 직딩+대학원생 여자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는 야간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이제 5학기 마지막 학기네요.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더 든든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왜이리 논문을 쓰는 작업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걸까요? 원래 성격자체가 꼼꼼하거나 분석적이거나 정리하는 등 논문의 기초 작업과는 먼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려니 신경성 두통이 와서 미루고 있습니다.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요?

두잔지옥

A Hey 두잔지옥!
누구에게나 싫지만 정면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경우 확실한 효과가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하기 싫다면 뻔한 진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지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개 하기 싫은 일을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놓인 현 상승지의 삶을 불편하게 뒤흔들어서 무리를 해야 비로소 앞으로 전진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인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둘째, 나는 원래 꼼꼼하거나 분석적이거나 정리를 잘하지 못해서 로 자신에 대한 틀을 만들어버리면 절대로 지금의 나 이상으로 성장 못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뿐.

마지막으로, 의욕을 가지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현대 시간의 빠른 흐름을 실감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내 나이가 서른인 줄 알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타이밍이 제한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명확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리적인 노력과 정으로 진로와 인생을 바꾼 경험은 나중에 큰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어느덧 성취의 동기부여가 몸에 배어 스스로 알아서 들이가게 만듭니다. 그런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2	7		
	7			9	3			1
3							5	
	9			8				4
	1						8	
8				3			6	
	4							7
2			3	7			4	
		7	8			5	9	

		5						3
7		8		9			1	6
		1			3	8		
			7	5		6		
	4			8			5	
		7		3	1			
		2	9			7		
5	6			7		2		4
9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 연시 스도쿠 라이트 (아이를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 533-8877
www.saju4000.com

몸이 아파 건강한 삶 원해요
역학 공부하면 마음 편해져

한번너구리 여자 69년 5월 21일 음력 새벽 5시 40분

Q 안녕하세요. 사계절 내내 빠짐없이 읽고 스크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살아 고달파도 견뎠는데 이제는 몸 아픈 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은 건강하게 살다가고 싶은데.

A 현대를 살아가는데 과학의 발전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미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삶의 내용과 질을 더 높이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학의 수준이 아직은 생과 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만인이 지켜야 할 근본이지만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세상에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일들은 보통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알고 가고 싶은 게 사람마음이니 역(易)을 공부해 보십시오. 직관과 예지력은 정신영역이고 과학은 물질영역을 규명한다고 본다면 역은 이 두 요소가 들어 있기에 왜 힘들고 아프게 살아야 하나 분석됩니다. 계속 다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가수연습생 6년째, 데뷔하나
인연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

물리사 여자 92년 3월 1일 음력 오후 5시 10분

Q 언제인가 가수 쪽으로 진로를 하려고 기획사에서 연습생생활만 6년째인데 데뷔 하려고 준비까지 갔다가 소속사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자꾸 취소가 돼 버려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야하는지~

A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변에 머무는 행운의 기운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운세가 좋을 때 행운도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야를 선택하셨다면 그 만큼 더 어려운 노력이 필요했을 터이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걱정이 커지는데 이기기 어려우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제 2의 인생을 찾아가는데 기기가 활짝하면 큰 어려움도 가벼워지며 힘을 얻게 됩니다. 식상(食傷)의 구조는 예능계와 인연은 있으니 기다려야 하는 장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상 다음날을 기약하며 의지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1일(음 5월 1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진인의 호령이가 되어라 60년생 생각의 지이 한 참하면 편안하다 72년생 문서 일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84년생 적당한 욕심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된다

소 49년생 환자는 변세기 호전된다 61년생 직장서 중책을 맡이 어깨기 무겁구나 73년생 결정한 일 번복하면 후회만 남는다 85년생 좋은 기회가 오니 꼭 잡아라

호랑이 50년생 돈을 빌려면 기꺼이 줄 서라 62년생 추진한 일은 모두 순조롭다 74년생 구설수 따르니 어딜 가나 언행 조심~ 86년생 고리 너무 부리면 일만 꼬인다

토끼 51년생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63년생 닭큐한 말로 선동하는 사람은 멀리할 것 75년생 부모에 감사할 일 생긴다 87년생 정당하지 않는 방법은 쓰지 말라

용 52년생 배우자 역정에 밖의 난리할 게 있어 답다~ 64년생 뜻밖의 공문이 생긴다 76년생 공짜는 없으니 일을 들려라 88년생 심균은 우연히 이성과 마주당한다

뱀 53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허둥댄다 65년생 가까운 사람의 돈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라 77년생 궁들인 일은 좋은 결실 맺는다 89년생 직장문제로 번뇌의 하루~

말 42년생 어려움은 틀리니 걱정 말라 54년생 욕심을 부리면 고통이 따른다 66년생 길 길어 바빠도 정도를 걸어라 78년생 발표나 제안을 하면 박수가 쏟아진다

양 43년생 좋은 이웃이 있어 즐겁다 55년생 협조자가 딴 생각하니 조심~ 67년생 봉투명 했던 일은 길이 잡힌다 79년생 주변에 사공이 많아 머리가 혼란스럽다

원숭이 44년생 참고하면 꼼따 자~ 56년생 미덥 비우면 쉬기가 쉬어 된다 68년생 혼자 가지 말고 조직과 함께 하라 80년생 좋은 길로 인도 해는 도우미 나타난다

닭 45년생 미련은 미움만 아프게 한다 57년생 돈 어찌리다 위험한 것 방지 말라 69년생 성공으로 가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81년생 주변의 충도 귀담아 들어라

개 46년생 지나긴 일은 꺼내지 말라 58년생 친구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 70년생 내 것이 아니면 아예 탐내지 말라 82년생 사람도 집착하면 부자연스러워 진다

돼지 47년생 자손이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9년생 물고기가 큰 길로 나가는 격~ 71년생 배우자와 생각이 달라 직장하다 83년생 경쟁자에게 배울 것은 배워라.

홍명보호 '7일의 기적' 이뤄낼까

평가전 공·수 전반 문제점 드러내
'패배가 약' 남은 일주일 보완 총력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 나서는 홍명보호가 최종 평가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조던 아예우(소쇼)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0-4로 대패했다. 공·수 전체적으로 움직임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 무기력, 튀니지전 데자뷰

지난달 28일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튀니지전서 0-1로 패했던 한국은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가나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대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가나와의 경기서 전반 10분 만에 수비진의 실수로 조단 아예우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어 전반 43분 가나의 공격수 기안은 중앙선 부근부터 단독 드리블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홍명보 감독은 가나전을 앞두고 상대 역습 차단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개인기를 갖춘 가나 공격진의 속공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튀니지전서 상대 속공에 흔들린 모습을 가나전서 재현했다.

공격 역시 튀니지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국은 전반전에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때린 두 차례 슈팅 외에는 별다른 득점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후반전 들어서도 경기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채 고전했다. 오히려 가나의 역습에 한국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 볼 점유율 높지만

한국은 가나와 평가전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미드필더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패스는 가나의 수비에 번번이 막혀 골을 터트리지 못했다. 또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원에서 볼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반면 가나는 공을 잡았을 때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실리를 챙겼다. 공 주변에 순간적으로 많은 선수가 밀집하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 한국 선수를 고립시키는 식이었다.

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마무리하는 골 결정력 역시 한국과는 수준이 달랐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초반에 실수로 내준 두 골을 극복하기 어려웠다"며 "후반에도 조직적으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이어졌다"고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본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명보호 숨은 비책은

"평가전은 평가전일뿐이다."

한국 축구대표팀 수문장 구성윤(가운데)이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0-4로 대패한 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가나와의 평가전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연 홍 감독의 이야기처럼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낼 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홍명보호의 성적을 보면 지난 2002년 4강 신화를 완성하던 모습과 비슷하다. 당시 대표팀을 이끈 히딩크 감독은 한국을 '기적의 팀'으로 만들었다.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히딩크는 잇단 평가전과 친선경기 등에서 거듭 패배하며 오대영(0-5 패배)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붙었다. 그러나 비난의 화살에도 히딩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은 홍 감독에게서도 느껴진다. 최종 평가전에서의 패배가 대표팀의 보완점과 과제들을 정리하고 선수들의 집중력을 살아나게 할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키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이 쥐고 있다. 가나전 이후 7일 동안의 시간은 대표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명보호는 오는 18일 오전 7시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 아레나 경기장에서 러시아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정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브라질의 불타는 첫 주말

스페인 vs 네덜란드 등 빅매치 줄이어

브라질의 프레드(오른쪽)가 7일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득점한 뒤 헐크(왼쪽)와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구팬들도 분주해졌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경기에 맞춰 효율적인 밤잠 관리가 필수인 가운데 개막 첫 주 놓쳐서는 안될 빅매치가 이어진다.

13일 오전 5시 브라질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의 화려한 플레이를 최초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우승을 향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이 경기에서 총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브라질을 이끈다. 당시 호나우두·히바우두·호나우지뉴 '삼각편대'를 앞세워 정상에 오른 스콜라리 감독은 네이마르, 프레드(플루미넨세), 헐크(제니트)로 구성된 '신 삼각 편대'를 앞세워 우승을 노린다. 이미 지난해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스페인을 꺾고 정상을 차지함으로써 전력 점검은 마쳤다.

14일 오전 4시 열리는 스페인-네덜란드전은 첫 주말을 가장 뜨겁게 달굴 경기이자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맞붙은 두 팀의 리턴 매치다. 4년 전 대결에서는 13장의 옐로카드가 쏟아지는 연장 혈전 끝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결승골(바르셀로나)에 힘입은 스페인이 월드컵 첫 우승을 따냈다.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무적함대' 스페인은 여전히 막강 화력을 뽐내며 브라질에 맞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두 팀이 속한 '죽음의' B조의 2위는 A조 1위가 예상되는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조 1위 쟁취를 위한 두 팀의 대결은 지난 대회 결승전 못지 않게 치열할 전망이다.

15일 오전 7시에는 '죽음의 조' D조에 속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진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의 대결은 쉽게 목격하기 어려운 빅매치다. 이들은 같은 조에 속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도 상대해야 되는 만큼 첫 경기에서부터 치열한 승점 쌓기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순호기자 suns@

프로야구 전적 10일

■ 잠실

NC	020	400	002	8
두산	211	000	000	4

△승=이재학(2승) △패=유희관(5승 3패) △홈런=모창민 7호(6회·2점)(NC)

■ 목동 <8회 강우콜드게임>

삼성	022	001	00X	5
넥센	210	001	01X	5

△홈런=채태인 … 박병호 …

■ 사직

LG	010	001	300	5
롯데	010	001	000	2

△승=류제국(2승 3패) △세=봉중근 △패=장원준 △홈런=…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